

學 習 및 生活指導

— 人格敎育과 價値觀敎育을 중심으로 —

崔 祥 鎭

(中央大 心理學科)

I. 序

大學의 기능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논하지 않더라도,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人格을 함양하는 곳이라는 견해에 異見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학문탐구는 일반적으로 敎養 또는 전문적인 知識의 습득과 새로운 지식의 創出을 위한 研究活動을 의미하며, 인격의 함양은 건전한 人性과 더불어 사회지도자 및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價値觀 및 態度를 포함하는 意識의 함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大學의 기능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대학에서 知識의 敎育과 人格의 敎育이 완전히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大學에서 人格의 함양을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은 敎養敎育과 一般의 敎科敎育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인격함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특별히 요청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大學人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격함양문제가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단정해 버리는 大學人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의 교수의 수효가 학생의 수효에 비해 너무 적으며, 현대 사회의 知識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知的 敎育에 할애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점 등이 大學

에서 학생들의 人格敎育에 投入할 수 있는 노력과 기회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격敎育이 더욱 제한되고 있는 현상을 촉진시키는 學校外的 要因으로는 社會와 독립된 '상아탑'으로서의 大學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 社會 속의 大學, 政治 속의 大學으로 변화되면서 敎育기관이 고유하게 가졌던 인격함양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화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구조 및 의식세계의 변화, 예컨대 물질주의와 실리주의 가치관의 팽배, 成人에 대한 존경심의 약화, 청소년집단의 세력강화에 따른 青年文化의 대두 및 이와 병행하여 나타난 傳統價値觀의 弱화, 大學生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현상, 敎授職의 대중화현상 등은 人格敎育者로서의 교수들의 기능 및 역할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변수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學校內外的 많은 요인들의 變化는 교수가 학생들의 人格 및 價値觀의 形成에 과거처럼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無氣力感을 교수들 자신에게 학습시키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오늘날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의 인격함양은 커녕 지식敎育도 시키기에 어렵다는 自己卑下感마저 느끼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이러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人格敎育을 大學에서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바

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여겨진다. 大學이 지식교육으로만 자족한다면 大學은 學館이나 研究所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른 한편 大學이 학생들에게 지식교육과 더불어 인격함양교육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大學이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는 傳統的 大學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大學에서 학생들의 人格教育은 當爲的 命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現代社會가 追求하는 價値가 大學의 인격함양기능을 수축시키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大學이 受動的으로 반응하는 일보다 오히려 大學에서 새로운 價値觀을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能動的으로 社會價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啓導할 책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前提 위에서 本稿은 學習 및 生活指導를 통한 大學生의 人格涵養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講義와 人格涵養

대학생활은 크게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 및 가정 등에서의 學習研究活動과 學校內外에서의 學習研究活動을 제외한 一般生活活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강의실 및 실험실에서의 授業活動이다.

일반적으로 授業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생들의 知的 成長을 돕기 위한 지식전수 및 학습활동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은 客觀的인 지식을 교수로부터 전수받는 것이며, 수업은 人格涵養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형성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수들에게도 수업시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관념을 형성시킴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와 관련시켜 논하며, 강의를 학생들의 人格成長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즉 강의와 인격함양을 연계시키는 意識的 努力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인격함양자로서의 교수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敎育의 場인 수업이 인격함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授業이 객관적인 지식의 인수인계에 머무를 때, 授業者로서의 교수의 역할은 로보트나 컴퓨터로 代行해도 좋다. 그러나 人格的인 상호영향을 기대하거나 가치관의 內面化를 목적으로 할 때는 人格的 만남이 前提되어야 한다. 즉 교수와 학생이 사랑·관심·존경 및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人格的 關係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때, 객관적 지식의 自己價値化 및 主觀的 內面化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교수방식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태도면에서 볼 때, 아무리 事實的 知識이라 할지라도 一方的으로 학생에게 注入을 강요하는 교수의 학생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止揚되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人格體로 받아들이고 학생의 견해를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학생중심적 敎育觀을 교수들 스스로가 지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一方的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講義式敎育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및 自我關與를 조장할 수 있는 수업방식을 강의와 더불어 병행해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의내용에 대한 자아관련이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價値判斷의 능력이 함양되기 어려우며, 지식의 價値化 및 內面化가 효과적으로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지식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自我와 社會와 관련시켜 그 의미를 규정해 보는 기회를 提高시킬 수 있는 敎育方法으로는 집단토의식 강의, 연구보고서 발표식 수업, 객관적 지식의 의미를 現實社會와 學生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재검토해 보는 내용을 포함한 강의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成績評價에서 객관적 지식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의 도입도 수업과 인격의 함양을 연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敎育방식은 학생수의 過多, 도서관의 참고서적 부족,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능력 결여, 수업 보조자료 준비에 필요한 학교의 행정적 지원의 결여 등의 현실적 敎育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어렵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수업은 강의자가 짜여진 講義要目에 따라 모든 수업내용을 교수가 철서정연하게 강의로 전달하고 학생들은 이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록하는 교수 중심의 知識傳達式의 강의방식이 傳統的으로 고수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전통적 강의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안이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一部 大學에서 講義要目에 얽매인 강의중심적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식을 교양과목 교육에 성공적으로 活用해 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도서관에 참고자료가 부족할 때는 담당과목 교수가 참고자료를 복사하여 참고열람실에 비치할 수도 있고,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소집단을 여럿 형성하여 사건에 집단토의를 통해 준비한 보고서를 수업 시간에 발표시킬 수도 있다. 평가방식에서도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생 자신의 견해와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報告制의 出題方式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소집단 연구발표와 집단토의와 같은 學生參與式 수업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학생의 인격함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들과 집단토의를 한다고 할 때 토의의 내용이 산발적이며 단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강의식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즉 전문적 지식의 傳達마저도 희생되는 사례를 많은 교수들은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참여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事前의 準備와 內容理解가 前提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수업방식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의식 교육에서보다 敎授의 技術이 더욱 중요하며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수 자신은 傍觀者여서도 안 되고 지나친 介入者가 되어서도 안 된다. 또 교수는 학생의 발언에 대한 評價者의 기능을 수행하되 학생들에게는 評價者로서 知覺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방식에서의 교수는 안내자, 지지자, 제시자, 평가자, 동기유발자 등의 多目的 機能을 수행해야 하므로 집단의 구성원 및 집단과정에 대한 洞察力도 구비해야 한다.

보통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으며, 相對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기술이 미숙하고,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수용하는 受容力이 높지 않으며,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事實中心의 토론에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학생참여식 수업을 잘못 실시하면 교수는 물론 참여학생까지도 지루함과 욕구좌절을 경험하기 쉬우므로 교수의 역할은 강의식 수업에서보다 훨씬 증대되며 교수의 機智와 技術이 더 크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학생참여식 수업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事前訓練이 요구되며,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체 과목에 걸쳐 학생참여식 수업방식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교양과목을 선정해서 실험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적인 修正補完을 가하여 각 大學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업방식은 우선 敎授에게 시간과 노력면에서 큰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교수들의 자발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學校에서는 敎授들의 動機를 誘發할 수 있는 誘引體系의 도입과 學生參與式 수업방식 도입에 필요한 行政的 支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Ⅲ. 生活指導와 人格涵養

학생들의 인격함양은 大學生活의 全過程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강의실에서의 知識教育보다는 學習의 場이 다양하고 넓다. 흔히 大學을 진성으로 졸업한 사람이라도 대학의 문턱을 밟아 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말을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듣는다. 大學生活에서는 강의실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知的 交流 이외에 象徵的으로 또는 對人關係를 통해서 받게 되는 意識的, 無意識的 영향이 많다. 학교식당이나 다방에서의 동료나 교수와의 대화, 많은 특별강연 및 세미나, 연구실에서 교수와의 접촉, 大學의 건물이 주는 상징적 意味 등은 모두 학생들의 人格的 發達에 영향을 주는 기회이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人格教育과 관련시켜 大學生活를 생

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수업보다 수업의적인 학교생활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졸업식에서 대학교장의 연설이 학생의 人生觀을 바꿀 수도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가졌던 對話가 학생의 價値觀 및 自我觀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넓게는 大學의 校風 또는 大學文化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개념화하면 潛在的 커리큘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潛在的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업에서처럼 顯在化 및 組織化되어 있지 않는 데서 연유했으며, 커리큘럼이라고 불리게 된 연유는 학교에서의 수업활동 이외의 학교생활의 일반 환경도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計劃되고 運營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學校生活이 인격함양에 기여한다고 전제할 때, 수업 이외의 학교생활 자체도 학생들의 人格發達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生活指導의 필요성이 부가되며, 生活指導가 수업 이외의 또 하나의 專門活動으로 發展되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현재 一部 大學에서는 學生生活研究所 또는 學生相談室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性格이나 情緒障礙를 가진 학생들의 相談 및 心理檢査, 학생들의 意識構造調査 및 新入生의 實態研究,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교양강좌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활동은 제한된 人力과 財政問題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학생들의 生活指導가 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소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對話하고 價値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담실의 상담원보다는 敎授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수가 상담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또 직접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지도의 一次의 담당자는 상담원보다 교수가 된다. 상담실은 오히려 교수의 학생지도 활동을 專門的 水準에서 지원하고 이를 綜合적으로 계획하며 교수에게 필

요한 資料를 제공해 주는 學生指導의 研究 및 管理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상담실의 주요 업무로는 敎授의 수준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性格障礙學生, 學校生活不適應學生을 보다 專門的 水準에서 도와 주고 치료하며, 전체 또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學生들의 精神健康 및 人格發達과 관련된 교양강좌, 강연회 및 기타의 집단활동을 계획·진행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生活指導와 관련된 교수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成長發達을 돕는 人格發達指導,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學校不適應 및 學問에 대한 不適應을 도와 주는 適應指導, 끝으로 학생들의 價値觀, 態度, 社會性 등을 포함하는 指導者의 資質의 涵養指導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人格指導라는 말로 통칭해서 사용할 때, 교수는 학생들의 인격함양을 위한 생활지도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와 授業에 바쁜 교수들에게 생활지도의 업무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面談時間을 정해 놓고 자유로운 面談을 허용해도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學問分野가 아닌 社會問題, 價値觀 및 人生觀問題 등에 대해 충고나 조언을 해주어도 이를 能動的으로 受容하려는 자세를 지닌 학생들이 적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생활지도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품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수와의 對話나 相談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경향이 많다.

위의 같은 경향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수를 만날 수 있는 私的인 機會가 적고, 학생들이 교수들의 방문을 두드리는 데에 대한 복잡한 未安全感 때문에 교수와의 對話를 원하면서도 대화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교수들의 思考方式이 학생들과 달라 자신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교수들은 保守的인 價値나 態度를 학생들에게 訓示的으로 남두시려 들고, 교육자라는 직분에 얽매어 자신에게 眞實이 아닌 公式的인 입장에서 말한다는 固定觀

念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도 학생과의 대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思考方式에서 학생들이 교수와 다르며, 학생들이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對話에 대해 적극적으로 動機化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위와 같은 장애요인이 생활지도면에서 교수들의 潜在的 力量을 무력화시켜 왔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人格涵養문제에 教授가 아닌 第三者의 無作爲的 要因에 맡겨져 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인격함양이 大學의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價値觀教育이 수업외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환경을 교육적 입장에서 잔재적 커리큘럼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받아들인다면 학교의 생활환경은 학생들의 人格涵養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생지도이건 학생상담이건 어떤 명칭을 부여하든간에 학생들의 인격함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업외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人格教育은 知識教育과 달라 책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이 수행할 때에 효과가 크며, 人格教育에 적합한 사람은 학교의 교직원도 상담실 직원도 아닌 教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수가 수업외적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나 상황은 私的인 접촉 및 對話狀況, 교수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觀察模倣狀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상황은 對話를 통한 人格涵養일 것이다.

對話가, 그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간에 相對에 대한 信賴와 尊敬의 태도가 대화에 앞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신뢰와 존경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는 상미에게 感化를 주기 어려우며 교육적인 對話가 되기 어렵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個人的인 問題를 논하는 私的인 對話 그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들은 對話를 기대하기 전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對話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

러한 노력은 우선 教育의 主導者이며 責任者인 교수측에서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기 위해서는 知識傳達者로서의 교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학생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과감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편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수와의 對話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화의 기회를 교수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안한 對話, 하고 싶은 對話는 가깝게 느껴질 때에 일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私的인 좌석에서의 학생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증대시켜 親熱感을 유발하고, 교수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도 학생들의 친근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對話의 과정에서 가치판단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두될 때는 교수가 結論이나 選擇을 내려 주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知識과 情報를 제공해 주고 訓育者가 아닌 相談者·助言者 또는 協助者로서의 태도와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對話를 위한 基本要件 및 信賴의 人間關係 形成과 더불어 학생들이 쉽게 교수를 접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된다. 즉 非公式的인 對話狀況을 가능하면 증대시키고 이미 존재하는 私的인 대화의 기회를 교수가 참석하여 이를 백분 活用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학생들의 수업외적 집단활동, 수학여행 및 견학 등을 학생들 자신의 活動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한 사람의 人生先張로서 또는 對話의 同僚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대화를 갖게 될 때, 학생들은 물론 교수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주며, 對話의 量은 증가하고 생활지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손쉽게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와 對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自由面談 時間의 배정이 필요하다. 이때 그 성격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약속된 시간에 교수가 학생을 기다리는 아량을 보인다면 학생들의 信賴感은 물론 對話의 容易性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과 여러 명의 교수가 함께 앉아 학생들의 관심문제를 集團으로 討論하는 集團討議式 相談이나 討論活動도 학생들의 人格涵養에 기여하는 對話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話를 통한 학생들의 生活指導 및 人格涵養活動은 현실적으로 교수들에게 시간적 및 심리적 부담을 주며, 따라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수에게는 공연히 일만 벌리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가 교수직을 떠나지 않는 한, 學生指導 및 人格涵養에 대한 活動을 저버릴 수 없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教授의 使命이요, 特權이라고 생각한다.

IV. 結 語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우리의 教育環境과는 동떨어진 現想的 教育目標과 教育方式을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大學教授들이 담당하고 있

는 授業時間 및 學生數는 外國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며, 學界에서의 學問的 研究發表에 대한 부담도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가는 現實에서 학생들의 人格教育 및 生活指導에 대한 課題를 첨가시킨다는 것은 교수들에 대한 또 하나의 拷問이라고 생각되기까지 한다.

특히 과거에 관계당국에서 대학교수의 學生指導問題를 關照적으로 다루어 오던 행정풍토에 익숙해 있는 교수들에게는 生活指導나 學生指導의 문제를 行政的인 次元에서 논의할 때, 感情的 拒否反應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生活指導 및 人格涵養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활동도 교수들에게 責任을 지우는 형태의 행정적 조치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效果의 일 수도 없다. 교수 스스로가 학생들의 人格 및 生活指導의 문제를 인식하고 교수들이 이를 위한 노력과 活動을 自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自生的이며 漸進的인 變化를 학교당국에서 여하히 유도하느냐가 문제해결의 關鍵이 됨을 깨달으면서 이 글을 끝맺기로 한다. *